

초조대장경 복원, 문화 르네상스로 이어지길

초조대장경복원간행위, 대구 동화사서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 봉정식 ... 대구 동화사·일본 남선사·대구시에 봉안



2011년 고려 초조대장경 판각 1000년의 해를 맞아 복원간행된 초조대장경의 모습.

“2011년은 고려대장경이 편찬된 지 1000년이 되는 해입니다. 1000년 전 거란의 침입으로 사라진 대장경을 복원해 부처님께 봉안하는 날입니다. 이 자리는 고려대장경의 1000년을 기념하고, 자축하는 잃어버린 1000년을 되찾는 시간입니다.”

잊혀진 경함(經函)이 열렸다. 두루마리 형태의 경전이 모습을 드러냈다. 쪽빛 종이(紺紙) 겹웃을 입고 있었다.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한일공동 초조대장경복원간행위원회 공동위원장),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 대구 부인사 주지 종진 스님은 갖 태어난 아기를 다루듯 한 장감을 끼고 조심스레 경전을 펼쳐보았다. 반짝반짝 빛나는 한지는 잡티 하나 없는 아기 피부처럼 하얗다. 그 위에 새겨진 경구의 활자는 힘이 넘쳤다.

1011년(고려 현종 2년) 조성됐던 우리나라 최초의 한역 대장경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이 2011년 3월 19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최초로 공개됐다. 고려대장경연구소는 2004~2009년 국내 및 일본에

이날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본을 부처님께 올리는 봉정식이 진행됐다. 봉정식에는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주지 성문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 대구 부인사 주지 종진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혜정 정사, 종회 의장 혜명 정사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증명법사인 진제 스님은 “고려 초조대장경 중 100권을 1차로 복간해 봉정법회를 여는 것은 다시 한 번 불보살님의 가피를 빌어 한국불교가 세계의 정신문화를 선도하고, 남북평화통일과 세계평화 성취를 발원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성문 스님은 “초조대장경 복원은 불교 만의 자랑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경축해야 할 일이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가는 무한 동력이 민족 문화에 있다는 점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최고의 자산은 불교의 사상과 문화”라고 말했다. 이어 성문 스님은 “불교문화를 왜곡· 폄하하는 일에 대해서는 철수(攝受)와 절복(折伏)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대신해 낭독한 치사에서 “초조대장경의 새로운 복원본사가 지식 문화를 아우르는 문화의 르네상스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과 동화사, 부인사 및 국내외 소장 기관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공개된 복원간행본은 1011년 처음 조성된 우리나라 최초의 한역 대장경 초조대장경이다. 초조대장경은 종이와 인쇄 기술 등 고려의 문화역량이 총집결된 민족 최고의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다.

초조대장경 경판은 고려의 수도 개경 현화사 등에서 판각 후 대구 팔공산 부인사로 옮겨져 보관해 왔다. 그러나 1232년(고려 고종 19년) 몽고의 침입으로 불타 없어졌다. 이후 조성된 것이 해인사 팔만대장경이다. 목판본으로 남아있는 해인사 팔만대장경과는 달리 초조대장경 목판본은 거의 없다.



(왼쪽부터)대구 부인사 주지 종진 스님,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 동화사 조실 진제 스님,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조계종 문화부장 효탄 스님이 복원간행된 초조대장경을 대중에 공개하고 있다.



고려대장경연구소 이사장 종립 스님은 “잃어버린 천년을 되찾는 시간이다. 초조대장경이 조성 1000년의 시간과 공간에 함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인연이 있는 존재”라고 인사를 했다.



(오른쪽부터)성문 스님, 효탄 스님, 종립 스님, 종진 스님이 초조대장경 복간본을 3월 19일 대구 동화사 통일대불전에서 봉정하고 있다.

이번에 복원된 초조대장경은 소실 후 최초로 복간된 것으로, 초조대장경 6000여 쪽 중 국내 250여권과 일본 남선사, 대마도 등지에 남아있는 2500여 권의 인쇄본(인경본 印經本)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위원회(공동위원장 종립)는 고려 전통 한지제작법을 이어오고 있는 김삼식·장용훈 한지장이 종이를 사용하고 원본을 촬영한 뒤 실크스크린 작업으로 복원했다. 경함 제작 업체 선정에도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해 고려시대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살렸다. 원본에 따라 국내에서 두루마리 형태, 일본 것은 접이형태로 만들었다.

두루마리 형태의 경전은 배흘림 양식 모양의 축(軸)을 중심으로 말았다. 겹을 싸고 있는 감지(紺紙)는 쪽염색으로 본문의 2분의 1 크기를 사용하고, 먹인경방식으로 인쇄된 복원간행본의 본문은 23행 14자를 기본으로 구성했다. 경전은 생 옷질한 소나무 경함에 40권씩 보관되며 1차로 제작된 복원본은 동화사에 100권, 대구시에 100여 권을 전달하고 3월 30일 일본 남선사에도 100권 전달할 계획이다. 또한 2011년 100권, 2차년도 400권, 3차년도 500권, 4차년도 500권, 5차년도 540권을 각 3부씩 퍼낼 예정이다. 초조대장경 복원간행 사업에는 연간 60억의 예산이 투입된다.

#1000년 기념 행사 일정

동화사에서 진행된 봉정식에 이어 3월 30일 일본 교토 남선사에 새로 복간된 초조대장경이 전달된다. 남선사에는 초조대장경이 1800여 권이 소장돼 있었으며 디지털 자료화 작업 등에 자료를 제공한 단체다.

기념 행사로는 9월 1~4일 대구 팔공산집단시설지구 내에서 산중전통장터 승시가 열리고 9월 23일~11월 6일 ‘2011 대장경천년 세계문화축전’이 개최된다.

1000년 한일공동 초조대장경복원간행위원회와 고려대장경연구소는 6월 26~29일 대구 인터파크호텔에서 국제학술회의를 개최한다. 대장경천년세계문화축전조직위원회와 유네스코 한국조직위원회는 9월 28~29일 창원컨벤션센터 컨벤션홀에서 국제학술 심포지엄을 연다.

5~8월 서울 호림박물관, 7월 19일~9월 25일 국립대구박물관 기획전시실, 9월 20일~11월 2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불교중앙박물관, 9월 23일~11월 6일 해인사 인근에서 초조대장경 특별전시도 마련된다.

글=이성연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고려 문화역량 결집된 민족문화유산

국내의 인쇄본 모아 천년만의 간행

소장된 고려 초조대장경 인경본 디지털 구축을 완료하고, 2010년 2월부터 동화사·대구시와 함께 고려 초조대장경 복원 간행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초조대장경 복원본사를 묵묵히 일궈온 종립 스님은 새 천년의 꿈이 새로 그려지기를 바랐다.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1000년 전 초조대장경 판각이 봉안됐던 팔공산 부인사와의 인연으로 복원본 봉정식을 팔공산 동화사에서 하게 됐습니다. 만들어진 것은 부처지기 마련이지만 부처님의 말씀이 오래 전해지기를 바라는 건, 또한 중생의 마음입니다.”

스님의 얼굴에는 수줍은 미소가 사라지지 않았다.

BTN불교TV가 만든 인터넷 쇼핑물 '산사예'

네이버 검색창에 '산사예' 를 치세요. 검색

무릎과 허리의 충격을 최소화하여 108배 수행을 도와줍니다.
좌선 및 참선 시 자세를 편하게 잡아줍니다.
천연라텍스로 꺼짐이나 패임없이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합니다.

천연라텍스 절방석+라텍스 베개+나를 깨우는 108배 CD +기도포
169,000 원

나를 깨우는 108배 천연 라텍스 절방석

BTN불교TV 광고방송 중!

- 최상의 천연라텍스만을 사용**
우리나라에서는 생산되지 않은 천연라텍스(NR, 고무원액)를 태국에서 전량 수입하여 사용합니다.
- 믿을 수 있는 국내 생산**
고무원액만을 태국에서 수입하여 모든 제조공정은 국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방식의 걸레버와 속커버 모두 국내에서 생산되어 믿을 수 있습니다.
- 진드기, 곰팡이 NO! 뛰어난 항균성!**
화학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천연고무성분으로 진드기, 곰팡이 및 세균서식이 불가능한 뛰어난 항균성을 자랑합니다.
- 108배 시 충격 최소화**
탄력성 및 압력 분산성이 우수하여 절운동 시 하중 및 충격을 최소화 해주어 허리, 무릎관절 등 신체부위를 보호합니다.
- 완벽한 통기성과 복원력**
천연라텍스 절방석은 고밀도 제품으로 단위면적당 수심면적의 승수는 공기방(Air Cell) 구조로 인하여 완벽한 통기성 및 복원력을 지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판으로 방식의 사용을 용이하게!**
발판을 추가하여 방식의 깊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겨울철 차가운 바닥기로부터 발을 보호합니다. 접어 사용하면 장시간 참선에도 인체에 무리를 주지 않게 몸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주문전화 **080-780-0108**

대량 주문시 가격 할인혜택이 있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드립니다.
산사예 02)3270-3359 / 상담시간: 월~금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 / 인터넷 쇼핑물 www.sansae.co.kr